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 사 이 경 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정 옥 분

Dept. of Home Econmics Education, Hananm Univ.
Lecturer : Lee, Ky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 Boo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Two questionanires were developed by the authors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for measuring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was composed of 84 and 87 items for mother and father, respectively, which assesses three types of verbal control modes; imperative control, position-oriented control, and person-oriented control. The questionnaire for measu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y perceived by mothers was composed of 27 items, which assesses four areas of social competency; initiative, sociability, responsibility and self-disclos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6 mothers and their children of fifth an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Parents control their children mostly by position-oriented mode and least by imperative mode.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Children's social competency was related positively to the person-oriented and

position-oriented modes, but negatively to the imperative mode. The best variables explaining boy's social competency were father's imperative and position-oriented modes, whereas that for girl's was position oriented mode. 3) Mother's verbal control mode was not significant in explain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y. 4) The negative impact of father's imperative mode in combination with the mother's person-oriented mode on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y was greater than other combinations of father's and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Ⅰ. 서 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성, 연령, 형제관계,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태도, 문제해결 기술, 정보처리 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공인숙, 1989; 이경희와 최경순, 1992; Dodge, Pettit, McClaskey & Brown, 1986).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데(Perry & Bussey, 1984), 아동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속하는 문화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 등을 획득하여 적절한 사회적 판단과 자기조절을 할 줄 아는 책임감있는 사회의 성원이 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 훈육 등의 사회화 과정은 언어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보이는 일상 언어의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보다 총체적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가정의 부모가 아동의 사회화를 위하여 어떤 통제방식을 주로 쓰는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사회적 관계 또는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역할체제에 따라 다르며, 독특한 통제방식은 역할체제가 표현되기에 적합한 의사소통의 심층구조인 어법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이 어법을 습득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이정란, 1989; Wertsch, 1980).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아동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고 신체적, 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사용하는 명령적 통제를 하느냐, 아동의 지위에 관계한 규범에 따라 지위지향적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역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를 중요시하는 인성지향적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현주, 1990). 그러나 현재까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경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사회적 관계의 유형이 언어를 말로 표현할 때 선택하고 조직하는 어법 원칙(coding principle)을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Bernstein(1971)은 제한된 언어모형과 발전된 언어모형의 두 언어모형에 기초해서 가정에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설명이나 법칙, 즉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표현에서 아동에게 역할재량권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이다. 명령적 통제유형에서는 역할재량권(role discretion)을 아동에게는 거의 주지 않으며 제한된 어법을 주로 사용하고 아동의 행동을 체벌이나 위협 등으로 부모의 지시에 대한 복종과 수용만을 허용한다.

지위지향적 통제유형은 사회의 특수한 보편적 지위에 내재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을 통제한다. 부모나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가족 또는 사회규범이나 아동의 지위규범이 행동통제의 준거가 되어 언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인성적 통제는 아동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 등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부모는 아동에게 행동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아동이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설명을 해 준다. 규칙은 아동이 성취하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선택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Bernstein의 언어통제유형을 구분하는 기준과 측정방법상의 문제, 즉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구문론적 선택을 다룰 것인가, 의미론적 선택을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미론적 분석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 언어는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언어분석에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표현 양식, 즉 언어행위 습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어에 대한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사회적 능력

최근 긍정적 발달의 결과를 개념화하고 특수화하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서 능력(competence)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가상적 구성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동적 결과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어떤 결손이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Ford, 1982).

사회적 능력은 문화권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는 접근 방법에 따라 개념에 차이가 날 수가 있으나 대체로 동물행동학적인 관점, 사회적 상호이론의 관점, 인성의 구조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O'Mally, 1977). Ford (1982)는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 측면에 촛점을 둔 개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구조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그 하위개념으로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의 네 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Baumrind, 1972, Emmerch, 1977, MacDonald & Parke,1984).

부모가 긍정적인 원리를 사용하며 자녀와 온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아동은 친구들에게 수용되고 또래집단에서 주장적이며 다른 친구들의 호감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offman, 1975). 수용적인 부모는 지지적이면서도 자녀에게 확고하고 타당한 제한을 두어 이런 부모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Coopersmith, 1967).

이처럼 부모와의 상호관계가 아동의 효율성 및 사회적 능력 발달에 관련되며, 일반적인 양육태도가 또한 부모의 언어적 통제측면에도 반영된다고 보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측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해 준다.

어머니의 명령적이고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유형은 어머니가 그 행동을 잘못이라고 단정을 내리므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사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아동

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포괄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참조적 의사소통(이원정, 1990), 내적 통제성(서선주, 1988), 유아의 공격성(안명신, 1987), 아동의 자존감(이현주, 1990) 등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일방적인 명령지향적 언어나 부모의 지위를 강조하는 지위지향적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황이나 인물,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하게 하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언어통제를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과 관계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아동후기는 사회적 능력과 자율감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가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재량권을 부여하며 아동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회통제를 행하는가 하는 것은 아동에게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언어통제의 영향을 실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서울 시내 지역을 크게 네 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 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아동이 다닌다고 인정되는 한 학교씩을 표집하여 그 중 5,6 학년 남녀아동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아동은 부모 각각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해 응답하고 어머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정하였는데,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자료의 회수율은 100%였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자료의 회수율은 92%이었다.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아버지,어머니,아동 각 436부 총 1308부 였다.

본 연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인구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는 221 명으로 50.7 %, 여아는 215 명으로 49.3% 이었다. 가족수는 네 명이 62.2% 로 가장 많았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41.5%, 둘째가 44.5% 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1 - 50 세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40 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 대졸의 순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전체의 반 정도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상공업의 순이었다. 취업 어머니는 비취업 어머니에 비해 적었고 취업모의 경우 주로 전일제에 종사하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의 순이었다.

2. 측정도구

1)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이경희와 정옥분(1994)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 도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질문지이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통제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고,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척도는 27문제 87문항,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척도는 28문제 8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통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 재검사 신뢰도 및 요인타당도는 〈표 1〉과 같다.

2) 사회적 능력 측정 도구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

〈표 1〉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척도의 내적합치도, 재검사신뢰도 및 요인타당도

하위 척도명	문항수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재검사신뢰도	요인타당도
아버지					
명령적 통제	29	.95	.90	.91	.69
지위적 통제	29	.93	.88	.85	.87
인성적 통제	29	.93	.88	.86	.81
어머니					
명령적 통제	28	.95	.95	.91	.66
지위적 통제	28	.91	.91	.86	.82
인성적 통제	28	.93	.94	.89	.73

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는 이경희(1994)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능력은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의 네 요인으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27문항이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 및 반분신뢰도, 요인 타당도는 〈표 2〉와 같다.

〈표 2〉사회적 능력 검사도구의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및 요인 타당도

하위 척도명	문항수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요인타당도
주 도 성	10	.79	.77	.79
사 교 성	6	.81	.75	.64
책 임 감	7	.81	.70	.73
개 방 성	4	.68	.63	.77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1993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할 때, 평상시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개입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때 연구자는 실시시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알렸고, 순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반은 어머니에 관해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반은 아버지를 먼저 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어머니가 직접 평정케 하여 회수하였다. 5, 6학년 아동 500명에 대해 회수된 460명의 자료 중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 결손이거나 또는 응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아동,부,모의 삼인조가 연구대상인 총 1308(436x3)부를 연구 문제에 따라 자료처리를 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부모의 언어통제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문제에 따라 상관분석(Pearson's correlastion),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 보기 위해 변량분석 및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의 유의 수준은 .05로 하고 이상의 통계처리는 고려대학교 전산소에서 SAS, SPSS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언어통제유형의 하위 척도별 평균을 산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았다. 아버지는 지위적 통제(2.80±.52)와 인성적 통제(2.58±.67)를 명령적 통제(1.92±.72)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향은 어머니도 동일하여 아버지와 같이 지위적 통제(2.82±.56), 인성적 통제(2.68±.56), 명령적 통제(2.02±.68)의 순이었다. 부모 자신에 관련되는 경우들에서 언어통제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생활지도에 관련되는 경우들에서 부모 모두 언어통제 점수가 높아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상황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하위변인들에서 부모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예의범절이나 생활지도 등에 관련되는 문제에서 아버지의 통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는 학업에 관련되는 경우나 정리정돈 등에 관련되는 문제에 언어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언어통제를 달리 하고 있지 않았으나($t=1.19-1.79$, $df=434$, $P<.01$), 아버지는 언어통제를 상이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에게는 명령적 통제를($t=3.91$, $df=434$, $P<.01$), 여아에게는 지위적 통제($t=2.34$, $df=434$, $P<.02$)와 인성적 통제($t=2.07$, $df=434$, $P<.05$)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을 구성하는 각 하위 척도의 평균점수가 3.11에서 3.79의 범위를 나타내어 어머니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사교성은 3.79±.7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개방성(3.42±.81), 책임감(3.37±.83), 주도성(3.11±.73)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남녀 아동별로 사회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의 책임감($t=3.37$, $df=434$, $P<.001$)과 개방성($t=3.30$, $df=434$, $P<.01$)이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 관계

1) 적률상관관계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아, 여아, 그리고 전체 아동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능력의 하위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모 특히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유형과 인성적 통제유형은 하위변인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지위적 통제에서 사교성 및 책임감과, 인성적 통제는 주도성과 사교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부모의 명령적 통제유형은 네 가지 하위변인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아버지의 경우 사교성을 제외한 변인들에서, 어머니의 경우 책임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언어통제유형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차에 따라 상이하였다.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개방성에 부적 관계를 보인 명령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는 상관관계가 커서 명령적 통제는 부정적으로, 지위적 통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남아의 주도성은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는 부적으로, 지위적 통제와는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여아의 경우 인성적, 지위적 통제가 사회적 능력의 전 하위변인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명령적 통제는 사교성을 제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주도성과 책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남아와는 달리 여아에게는 사교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간의 중다회귀 관계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어느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언어통제 변인은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로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에서 각각 3.6, 3.4, 3.8, 4.2%의

〈표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능력과의 상관관계

사회적 능력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명령적	지위적	인성적
남아(n=221)						
주 도 성	-.15*	.18**	.12	-.09	.03	.06
사 교 성	-.03	16*	.04	-.04	.07	.05
책 임 감	-.20**	.12	.07	-.12	.05	.03
개 방 성	-.11	.21**	.12	-.14*	.13	.06
여아(n=215)						
주 도 성	-.08	.20**	.24***	.01	.12	.21**
사 교 성	-.15*	.20**	.28***	-.08	.12	.23***
책 임 감	-.05	.25***	.14*	-.05	.15*	.13
개 방 성	-.12	.17*	.20**	.07	.02	.11
전체(n=436)						
주 도 성	-.12*	.19***	.17***	-.04	.08	.13**
사 교 성	-.09	.18***	.16***	-.06	.10*	.14***
책 임 감	-.16	.19	.12*	-.10	.10	.08
개 방 성	-.14**	.21***	.17***	-.05	.09	.09

* P<.05 ** P<.01 * * P<.001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이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로 사교성을 제외한 하위변인들에서 유의한 독립변인이었으며 주도성, 책임감, 개방성에서 각각 1.0, 2.1,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중다회귀 방정식의 결정계수(R^2)를 토대로 판단할 때,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사회적능력의 변이를 5%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남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유형으로 주도성, 사교성, 그리고 개방성에서 각각 3.2, 2.5, 4.3%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주도성과 책임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설명력은 각각 1.9, 4.2% 였다. 언어통제유형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네 영역에서 4.5-5.9% 의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이었다.

여아에게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남아와는 달리 여아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유형으로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주도성, 사교성, 개방성에서 각각 5.5, 7.8, 3.8%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는 책임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6.2%의 설명력을 보였다. 여아에게는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유의한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언어통제유형이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남아보다 높은 6.5-9.8%로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변인군과의 정준상관

언어통제유형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예측변수군(predictor set)으로 하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변수군(criterian set)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can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 유의한 제1정준함수를 얻었으며(Wilk's λ : F=2.02; df=24 ; P<.002), 정준근은 .089, R^2는 .081이었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의 제 1 정준함수에 의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군의 분산설명율은 4.3% 였다. 〈표 5〉는 제1정준함수에 의해 나타난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와 정준적재치를 보인 것이다.

〈표 4〉 사회적능력에 대한 언어통제유형의 중다회귀 분석

		전 체(n=436)		남아(n=221)		여아(n=215)	
사회적 능력	변인	회귀계수	R^2 누적값	회귀계수	R^2 누적값	회귀계수	R^2 누적값
주 도 성	FPOS	.085**	.036	.075**	.032	.044	.005
	FIMP	-.037*	.046	-.048	.051	-.025	.007
	MPER	.030	.051			.053	.019
	MPOS	.035	.053				
	FPER					.099**	.074
	MIMP					.027	.079
사 교 성	FPOS	.049**	.034	.041*	.025		
	MPER	.021	.040			.032	.012
	FIMP	-.016	.045			-.025	.014
	FPER			-.023	.033	.068	.098
책 임 감	FPOS	.069***	.038	-.036	.011	.091	.062
	FIMP	-.042*	.057	-.056**	.053		
	MIMP	-.012	.059	-.015	.055		
	MPER					-.020	.065
개 방 성	FPOS	.041**	.042	.040**	.043	.019	.005
	FIMP	-.020	.056	-.009	.045	-.025	.019
	MIMP			-.022	.062	-.013	.026
	FPER					.035**	.064
	MPER					.017	.070
	MPOS					-.023	.076

주 : FIMP ;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 FPOS ;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 FPER ;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 MIMP ;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 MPOS ;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MPER ;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

* P<.05, ** P<.01, *** P<.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준가중치가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아버지의 지위적통제이었고 그 다음이 명령적 통제이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개방성이었으며 그 다음은 책임감과 주도성이었다. 평가변수군에 대한 예측변인의 정준적재치는 지위적 통제가 .21로 다른 통제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예측변수군에 대한 평가변수군의 정준적재치는 개방성, 주도성과 책임감의 순으로 높았으며 사교성에서는 낮았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준함수를 얻을 수 없었다(Wilk's λ : F=1.27, df=24, P>.05). 이 결과는 적률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유의성이 없는 사실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군으로 분리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군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는 예상된 바대로 유의한 정준함수를 얻을 수 없었다(Wilk's λ : F=.95, df=12, P>.05).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군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군 간에는 유의한 제1정준함수를 얻었으며(Wilk's λ: F=2.03, df=12, P<.05), 정준근은 .076, 정준상관계수는 .266이었다. 제1정준함수에 의한 사회적 능력의 분산설명율은 4.5%였다. 〈표 6〉은 제1정준함수에 의해 나타난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

〈표 5〉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변 수 군	예측변수군의 정준함수		평가변수군의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예측변수군				
아버지의 명령적통제	-.44	-.59	-	-.16
아버지의 지위적통제	.80	.78	-	.21
아버지의 인성적통제	-.17	.45	-	.12
어머니의 명령적통제	-.32	-.52	-	-.14
어머니의 지위적통제	.14	.38	-	.10
어머니의 인성적통제	-.11	.22	-	.06
평가변수군				
주 도 성	-	.22	.29	.78
사 교 성	-	.15	.04	.55
책 임 감	-	.22	.25	.79
개 방 성	-	.25	.61	.91

〈표 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군의 정준가중치 및 정준적재치

변 수 군	예측변수군의 정준함수		평가변수군의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예측변수군				
아버지의 명령적통제	-.60	-.64	-	-.17
아버지의 지위적통제	.90	.80	-	.21
아버지의 인성적통제	-.22	.47	-	.13
평가변수군				
주도성	-	.23	.41	.85
사교성	-	.15	.04	.57
책임감	-	.22	.26	.81
개방성	-	.23	.48	.86

와 정준적재치를 보인 것이다.

〈표 6〉에 제시된 정준가중치 중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이었고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이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개방성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도성, 그리고 책임감의 순이었다. 평가변수군에 대한 예측변인의 정준적재치는 지위적 통제가 .21로 다른 통제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예측변수군에 대한 평가변수군의 정준적재치는 개방성과 주도성이 .23이고 책임감이 .22로 .15를 나타낸 사교성에 비해 높았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여아의 사회적 능력군 간에는 남아와는 달리 유의한 제1정준함수를 얻을 수 있었다(Wilk's λ: F=1.96; df=24; P<.05). 정준근은 .133, R^2는 .117이었다. 제1정준함수에 의한 사회적 능력의 분산설명율은 5.7%였다. 〈표 7〉은 제1정준함수에 의해 나타난 예측변수군 및 평가변수군의 정준가중치와 정준적재치를 보인 것이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준가중치 중 가장 높은 예측변수는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의 순이었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평가변수는 사교성(.61)이었다. 평가변수군에 대한 예측변수의 정

〈표 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여아의 사회적 능력간 정준가중치와 정준적재치

변 수 군	예측변수군의 정준함수		평가변수군의 정준함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정준가중치	정준적재치
예측변수군				
아버지의 명령적통제	-.36	-.45	-	-.15
아버지의 지위적통제	.24	.62	-	.21
아버지의 인성적통제	.43	.87	-	.29
어머니의 명령적통제	.28	-.03	-	-.01
어머니의 지위적통제	-.21	.29	-	.09
어머니의 인성적통제	.57	.67	-	.23
평가변수군				
주도성	-	.27	.32	.79
사교성	-	.31	.61	.90
책임감	-	.17	-.14	.48
개방성	-	.25	.35	.73

준적재치는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가 .29,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가 .23으로 다른 통제유형에 비해 높았다. 예측변수군에 대한 평가변수군의 정준적재치는 사교성이 가장 높아 .31이었고 주도성, 개방성, 책임감의 순이었다. 부모의 인성적 언어통제가 여아의 사회적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이며 여아의 사교성, 주도성, 개방성 등과 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정준분석 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남아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특히 지위적 통제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명령적인 통제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남아의 개방성, 책임감, 주도성에 영향을 준다. 남아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에 비해, 여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아의 사교성, 주도성, 개방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 각각의 세 가지 언어통제유형을 조합한 그룹간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언어통제 하위변인 중 평균점수 이상이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유형을 부모 각각의 대표적 언어통제유형으로 하여 아홉 개 그룹(아버지 3유형 x 어머니 3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 간에 아동의 사회적능력에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고, 유의한 경우 Scheffe' 검사로 평균간의 차이 검증을 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네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97-4.70$; $df=8,297$; $P<.05$). 〈표 8〉은 부모의 언어통제 그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균점수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서로 일치하는 율은 56%로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표 8〉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의 언어통제의 일치 여부 보다는 주로 아버지의 통제유형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부모 언어통제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주도성과 책임감 점수는 아버지

〈표 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균 점수

(n=306)

아버지- 어머니	표본수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
명령적-명령적	67	30.08 ab	22.58 a	22.57 b	12.67 b
명령적-지위적	33	30.42 ab	22.36 a	22.55 b	13.21 ab
명령적-인성적	12	28.50 b	19.50 b	18.58 c	12.58 b
지위적-명령적	19	33.95 a	23.63 a	26.21 a	15.16 a
지위적-지위적	55	31.75 ab	24.13 a	25.91 ab	14.22 ab
지위적-인성적	28	33.00 a	24.14 a	24.43 ab	14.43 ab
인성적-명령적	16	32.94 a	23.62 a	23.00 ab	13.31 ab
인성적-지위적	26	33.35 a	23.46 a	25.39 ab	15.12 a
인성적-인성적	50	33.30 a	23.94 a	25.88 ab	14.68 a

같은 문자로 표기된 평균치는 동일 행내에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음.

가 명령적통제를 하는 경우에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개방성과 사교성에서도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아동의 사교성과 책임감 점수에서는 특히 어머니가 인성적 통제를 행함으로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 대립을 보이는 경우에 유의하게 낮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대립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사회적능력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 간의 이러한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기 위해서 아동의 성별로 나누어 다시 분석하였다.

남아의 경우 사교성에서는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1.93$; $df=8, 145$; $P>.05$), 주도성, 책임감, 개방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F=2.20$-3.93; $df=8,145$; $P<.05$).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사회적 능력은 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아 아버지가 명령적 통제를 할 경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낮음을 보이고 있으나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어머니의 인성적 통제 그룹은 세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의 대립이 남아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지위적-지위적, 인성적-인성적 그룹이 사회적 능력의 세 하위변인에서 높은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훈육방식의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에 따른 남녀 아동의 사회적능력 평균 점수

아버지-어머니	표본수(남)	주도성	책임감	개방성	표본수(여)	사교성
명령적-명령적	45	30.04 b	21.67 abc	12.24 ab	22	22.36 a
명령적-지위적	22	28.73 b	20.64 bc	12.91 ab	11	22.81 a
명령적-인성적	7	27.86 b	18.29 c	11.43 b	5	18.40 b
지위적-명령적	5	37.20 a	25.80 a	14.60 a	14	22.79 a
지위적-지위적	22	33.00 ab	25.91 a	14.82 a	33	23.33 a
지위적-인성적	12	32.83 ab	23.50 ab	14.42 a	16	24.43 a
인성적-명령적	10	32.50 ab	23.20 ab	12.50 ab	6	24.50 a
인성적-지위적	9	33.22 ab	24.78 ab	14.33 ab	17	24.47 a
인성적-인성적	22	34.36 ab	26.59 a	14.82 a	28	24.82 a

같은 문자로 표기된 평균치는 동일 행내에서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음

여아의 사회적 능력의 네 하위 영역 중 사교성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그룹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2.06$, $df=8,143$, $P<.05$), 주도성, 책임감과 개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74$-1.31; $df=8,143$, $P>.05$).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 그룹에서 여아의 사교성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그룹에 따라 남아에서는 주도성, 책임감, 개방성이, 여아에게는 사교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아에게는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지위적 통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남녀 통틀어 사회적 능력의 네 하위변인 모두에서 명령적 인성적 그룹이 가장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에 대해서 각각 논의하고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

남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통제유형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와 지위적 통제의 영향이 인성적 통제보다 아동에게 미치는 비중이 컸고 주도성, 책임감, 개방성에 영향을 미쳐 명령적 통제는 사회적 능력 하위변인 모두에서 부정적으로, 지위적 통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표 3, 표 4, 표 6 참조).

아버지는 남아에게 지위적 통제를 주로 사용하며 명령적 통제를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지위적 통제가 남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이 크다는 것은 예기되었던 사실이나 명령적 통제보다 많이 사용되는 인성적 통제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게 사용되는 명령적 통제가 영향이 크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인성적 통제보다 빈도는 낮으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남아의 행동통제시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해결책을 그 즉시 제시하여 아동 스스로가 행동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아동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나 평가를 아버지가 해버리기 때문에 아동의 정직한 감정의 표현을 억제시키고 아동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자기평가를 낮게 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인성적 통제는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논리적 추구가 불완전할 경우 지위적 통제에 익숙한 아동에게 오히려 모호하게 되어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인성적 통제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Bernstein(1971)의 결론과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지위지향적인 우리의 가치관과 Bernstein의 연구대상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남아에게 보편적 사회규범이나 특수한 지위규범을 의무이자 특권으로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로 하여금 그러한 기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지위적 통제가 남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여아의 사회적 능력

여아의 경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중요도는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 지위적통제,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아의 사교성, 주도성, 개방성과의 관계가 커서 남아와는 달리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와도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표 3 참조).

그러나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만이 주도성, 사교성, 책임감, 개방성에서 유의한 설명변인이 되어 아버지의 인성적 통제가 여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표 4 참조), 이는 여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남아의 경우와는 크게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사실이다. 여아는 상대적으로 지위적 체계에 따른 설명보다는 논리적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지위지향적 가치체계에서 남아와 여아에 대한 기대도가 다른 사회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된다.

여아의 양육과정에서 남녀아에게 기대하는 관점이 달라 남아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속에서 자신을 보게 하기 보다는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보게 하는 훈련이 이루어진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지위적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표현을 많이 듣는 것은 남아에게 더 유리하게 마련된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여아에게 내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의 범위나 판단이 가족의 지위에서 오는 기능보다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오는 기능을 강조하는 인성적 통제가 여아의 사회적 능력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의 사회적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모 간 영향력의 차이

지금까지의 언어통제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를 한 단위로 간주함으로써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독립적인 언어통제 특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에 관계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더우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대상은 주로 유아나 취학전 아동이었다(정영숙, 1992; MacDonald & Parke,1984; Baumrind,1972).

부모 각각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아동 후기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변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를 한 단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와의 통합적인 관계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미흡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어머니의 일상적인 보호가 덜 중요해지는 아동 후기에는 취학전 아동과는 달리 어머니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의 아동양육에의 참여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경향(최경순, 1992)과도 관련될 것이다. 아동이 성장해 감에 따라 어머니의 일상적인 돌봄이 덜 중요해지고 아버지와 아동과의 애정적 관계가 더 중요시되어 아동의 사회화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는 연구 결과(Macdonald & Parke, 1984)와 일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이 자람에 따라 어머니의 보살핌이 줄어들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작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 시기의 자녀를 더 많이 보살펴 준다거나 사랑을 나타내며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보기는 미흡하다. 따라서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태도가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태도로 이 시기에 바뀐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최초로 갖는 동일시 행동은 분화되지 않은 행동이다. 후기의 발달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은 인간이 두 성별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 지금까지는 보호자 역할에 불과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남아의 특별한 지도자, 조언자, 모범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린 나이에는 유사성을 판단해서이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동일시하게 되지만 아동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친밀한 상관이 있어서 생긴 관계 때문이기 보다 유사성이 발견된 관계에 따라 동일시의 감정이 증가하게 된다.

남아가 남성의 역할과 모델을 선호하고 모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성 모델들이 우월한 특권과 권력,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남아는 차츰 아버지를 선호하여 모방하게 되

며 아버지에게서 정을 얻으려고 애쓰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언어통제는 남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남아의 지위를 강조하여 그 의무와 특권을 강조하는 동성 부모의 지위적 언어통제유형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아버지로 부터 명령적 통제만 받게 되면 남아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서 느끼는 갈등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능력 특히 책임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언어통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여아는 우선적으로 어머니를 동일시하지만 차츰 권력있고 능력있는 남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아버지를 모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남아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의 정준상관분석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통제도 여아에게는 중요함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남아의 경우 유사성과 유능에의 동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은 확연히 감소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증대되지만 여아는 유사성과 유능에의 동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4. 부모의 언어통제 그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9개 그룹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를 보였으며,성별로 볼 때 남아는 주도성, 책임감,그리고 개방성이, 여아는 사교성에서 그룹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유형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명령적일 때,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는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관계없이 남아의 주도성에 부정적임을 보였다. 주목할 사실은 어머니가 대조적으로 인성적 통제를 사용할 경우 부정적인 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Harris(1977)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 것처럼 부모간에 모순된 육아를 하면 부정적인 생활자세가 생긴다는 주장이나 부모들의 일치된 육아방식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바람직하다는 보고(이상로, 1979)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가 명령적이고 어머니가 인성적 통제인 불일치의 경우에만 어머니 통제유형의 의미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치와 불일치의 단순한 구분만으로 사회적 능력에 대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과 상이한 것이다.

여아는 사교성에서만 그룹간 차이가 있었고 명령적(부)-인성적(모) 그룹이 나머지 그룹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남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노력도 별 효과가 없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고 남성에게 많은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은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아버지와의 동일시로 바꾸어 가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명령적으로 아동을 통제하면 아동의 발달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명령적 통제가 어머니의 인성적 통제로 인해 대응이 되면 갈등이 조장되어 아버지의 통제방향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공인숙,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 한국아동학회지, *10*(1), 1989, 164-178.
2) 안명신,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공격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3) 이경희,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4) 이경희 · 정옥분,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5*(2), 1994, 69-96.
5) 이경희 · 최경순, 아동의 대인갈등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2), 1992, 83-97.

6) 이상로,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7.

7) 이정란, Vygotsky의 발달이론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과 유아의 자기조절력과의 관계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10*(1), 1989, 26-42.

8) 이현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9) 정영숙, 가족의 사회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10) 최경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2.

11) Baumrind, D., Socialization and instrument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In W. W. Hartup (Ed.), *The young child : Reviews of research* (vol. 2),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72, 202-224.

12) Bernstein, B.A., *Class, codes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1.

13) Emmerch, W., Family roles concepts of children ages six to ten. *Child Development, 48*, 1977, 609-624.

14) Ford, M.E.,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82, 323-340.

15) Harris, B.,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977, 257-265.

16) Hetherington, M.,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sex of the dominant parent on sex-role, preference, identification and imitation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2*, 1965, 43-53.

17) MacDonald. K., & Parke,R. D.,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984, 1265-1277.

18) O'Malley, J.M.,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Palmer Quartely, 23*(11), 1977, 29-44.

19) Perry, D.G. & Bussey, K.,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 Prentice Hall, 1984, 310-317.

20) Wertsch, J.V., The significance of dialogue in Vygotsky's account of social, egocentric, and inner speech.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5*, 1980, 150-162.